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8
----------	------

발의연월일 : 2020. 7. 14.

발 의 자 : 한정애 · 고영인 · 강병원
김영진 · 김경만 · 김민석
허종식 · 이용우 · 김영주
박성준 · 권칠승 · 황운하
신정훈 · 강선우 · 김성주
윤미향 · 장철민 · 김상희
윤후덕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명)에 불과함.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의 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 ----- ----- ----- -----<단서 삭제>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자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신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직중에 종사하는 자(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